

죄와 복은 그림자와 메아리와 같은 것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28)

빈로공의 업

사위국에 2백 살이 넘는 가난한 늙은이가 살고 있었다. 눈썹에는 삐죽하게 긴 털이 나있었고, 귀는 머리보다 솟았으며, 이는 마치 가지런한 조개 같았다. 손은 무릎을 지날 정도로 길었다. 그는 몹시 가난했다. 옷이 없어 거의 알몸으로 다녔고, 또 언제 나 먹지 못해 배는 곱아 있어, 걷는 것도 힘들었다.

어느 날, 늙은이는 사는 것이 너무도 힘들어 부처님을 뵈고자 했는데, 제석과 범인이 문지기에게 명하여 그를 들여보내지 않았다. 그러자 늙은이는 큰 소리로 말했다.

“나 비록 가난한 백성이기는 하나, 천 년 만에 만나 할 행운으로 부처님 때를 만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죄와 공덕을 여쭙어 이 갖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세존께서는 대자대비 하시어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들었습니다. 왜 이 늙은이만을 이리 대하십니까? 이는 성인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멀리서 알아들으시고 그를 불러서 들어오게 했다. 그는 배를 땅에 대고 엉금엉금 기어 나와 부처님께 예배하고,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착잡한 마음으로 자신의 괴로운 처지를 말했다.

“한 번 받들어 빗기를 원하다가 이제 겨우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기력이 이미 다하여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다만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 성인의 문을 더럽혀 거듭 죄를 더할까 두려워 뿐입니다. 세존께서 저를 가없이 여기시어 이런 소원을 저버리지 않으신다면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원하건대 속히 죽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목숨을 받아 태어나는 것은 대부분 인연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너를 위해 말해주겠다. 너는 전세에 어떤 크고 강한 나라의 왕족의 집안에서 태어났었다. 그때 그대는 태자가 되어 위로는 부모에게 총애를 받았고, 아래로는 신하와 백성들의 받들음을 받았다. 그런데 그대는 태자의 지위와 신분만을 믿고 방자하게 굴면서 모든 사람들을 가버려 버렸다. 언제나 모든 사람을 아래로 대하면서 거만하게 굴었다. 또한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과 걷어 백성들의 살림을 늘 힘들게만 했다. 너는 오로지 거뭇돌이와 쌀아들 줄만 알았지 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때 정지라고 하는 가난하고 검소한 사문이 먼 나라로부터 와서 일부러 그대를 만나러 갔던 일이 있었다. 사문이 많은 것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법의(法衣) 하나만을 원했을 뿐인데도 그대는 끝내 사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것도 모자라 부당하게 그를 대접하여 아주 심하게 대했다. 옷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밤조차도 주지 않았으며, 7일 동안 물 한 모금 주지 않은 채 꼼짝 못하게 했다. 그러자 사문이 탈진하여 기진맥진하게 됐다. 그때 그대는 아주 기뻐하면서 대중

을 모아 놓고 그를 구경하게 하며 대단한 오락거리로 만들어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모시고 있던 신하가 보다 못해 이렇게 간청했다.

“저 사문은 겉으로 보기에든 인자하고 공손하지만 속마음도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열게 하여도 추위하지 않고 배를 주리게 해도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사문이 태자님께 구걸하는 까닭은 태자께서 복을 짓게 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범의를 주지 않음도 그렇거니와 어찌서 그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입니까? 그만 그를 놓아 주시고 더 이상 죄를 쌓지 마십시오. 그러자 태자는 말했다.

“여기 이 사람이 자기가 도덕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사기를 치기에 내가 시험 삼아 조금 괴롭혀 본

면서 사문을 놓아 보았다. 그때의 사문이 바로 지금의 미륵이다. 이런 인연 때문에 너는 오늘날 이런 생을 받게 된 것이다. 가난의 죄를 받는 것은 탐욕 때문이요, 오래 살게 된 것은 사문의 목숨을 구함으로써 인연 때문이다. 죄와 복이 저마다 마땅한 보답이 있으니 마치 그림자와 메아리와 같은 것이다.”

늙은이가 말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으나 그 업보를 이생에서 끝나게 해주십시오. 다 죽어가는 이 목숨, 이제라도 사문이 될 것을 허락하시어 후세에는 세상마다 부처님을 모시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알겠다.”
부처님께서 늙은이의 뜻을 받아들여 바로 늙



삽화·강병호

것뿐이다. 그저 죽지 않을 만큼만 놀리고 이제 막 놓아주려던 참이었으니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

태자는 이내 사문을 떠나보내어 나라 밖으로 내 쫓았다. 사문이 나라의 경계를 벗어나 10여 리쯤 갔을 때에 굶주린 도둑을 만났다. 도둑이 그를 잡아먹으려 하자 사문이 말했다.

“나는 출고 배고픈 사문일 뿐입니다. 너무 말라서 뼈만 남았으니 냄새만 나고 먹을 것도 없을 겁니다. 공연히 죽어서 죄만 쌓는 것입니다.’

굶주린 도둑이 말했다.

“우리가 벌써 여러 날을 굶어서 조금 전엔 흉까지 먹었소. 당신이 비록 조금 마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흉보단 훨씬 나은 것이요, 절대 놓아줄 수 없소.’

이렇게 도둑과 사문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태자가 이 소식을 듣고는 이내 달려와서 말했다.

“내가 옷과 밥도 주지 못했거늘, 어찌 도둑한테 죽임을 당하도록 놔두겠는가? 도둑들이 태자를 보고는 모두 머리 숙여 사죄하

은이의 수염과 머리칼이 저절로 땅에 떨어지고 범의가 몸에 입혀졌다. 몸의 기력은 다시 되살아나 강건해지고 귀와 눈은 밝아졌으며, 그 자리에서 삼매에 들었다. 그리고 계승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불렀다.

“나는 옛날 사랑받는 태자가 되어서 / 인(仁)과 의(義)를 알지 못했으니 / 귀함을 뺏내며 제멋대로 굴었으며 / 그때 큰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 스스로 죄도 복도 없다 하면서 / 이것이 언제까지 보장되는 줄 알고 / 헛되이 생과 사의 대립을 깨달았기에 / 이제야 그 재앙을 받습니다. // 죄로부터 다시 복을 받게 되었음은 / 하늘 중의 하늘을 뵈게 된 덕분이며 / 지난 죄를 해탈하고서 / 다 죽어가는 때에야 범의 문에 듭니다. // 영원히 간담하는 마음을 여고 / 길이길이 부처님을 멀리 하지 않으면서 / 만겁 동안 보전 유지하오리다. (빈로공공경)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행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㉔



함부로 살 수 없어

글을 쓴다는 것

오늘 관음재일이라 절에 다녀오는 길에 전화가 걸려왔다. 아주 오래 전, 아마도 20년도 더 전에 알았던 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해도 스님이다. 현대불교 보시다가 나의 글을 보시고 반가워 전화를 하셨다고 했다. 스님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며 안부를 물으셨다. 우리 가족들, 아이들 이름까지 우리가 살았던 동네도 모두 잊지 않고 다 외우고 계셨다. 나도 늘 어디에 계시는지 궁금했었는데 스님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반가웠다. 더구나 신문의 내 글을 보시고 연락 주셨다니 신기하기도 했다.

오래전 어느 스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김해의 어느 비구 스님이 야구를 너무도 좋아해서 야구 경기를 야구장에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응원도 하고 싶어 미리 표를 구해 두었는데 그만 그 날에 49제가 걸려 갈수도 안 갈수도 없어서 다른 스님께 대신 기도를 맡기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 운동장 야구장엘 가셨단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너무 신나게 응원을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과 달리 스님이라서 카메라에 잡혀 화면에 나오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시간에 49제를 끝낸 가족들이 공양을 하기 위해 큰 방 요사체에

글을 쓴다는 것... '나' 를 쓰는 것

인사는 나와 주변을 유지시키는 것

들어서는 순간 TV에 나온 스님을 모두 보게 되었다고 한다.

인연이라는 게 흔한 말로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 더욱 언제 어디서 만날 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며칠 전에 충청도 청양이란 곳에서 역시나 신문을 통해 연락이 온 보살이 있었다. 이분은 평소 알고 있었던 사이가 아닐데도 현대불교신문 나의 '바라밀 일기'를 보고 나를 한 번 만나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했다고 했다. 보잘 것 없는 내 글을 읽어준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니 너무 고마워서 두 내외분께 작은 선물로 여름 부채에 글 몇 자 적고 그림 그려서 부쳐 드렸다.

요즘 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나의 글을 보고 격려의 말씀을 전해오는 분들이 종종 있다. 그럴 때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함부로 쓸 일이 아니라 생각이 글 앞에 앉을 때마다 나를 경계한다. 단 한마디의 글이라도 의미 있는 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할 때 마다 글은 평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 결국 평소의 내가 그대로 글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았다. 대중을 향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인사

부부동반 모임이 있어 남편과 함께 길을 나섰다. 마침 길 건널목을 지나는데 저만치서부터 젊은 여인이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곳은 전철역 입구여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길을 건너다보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나와 함께 가고 있어 나를 웃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물론 내가 잘 모르는 얼굴이어서 그랬다. 그런데 가까이 와서 내 손을 잡으면서 반가운 얼굴로 내게 인사를 했다. 그녀는 내가 다니는 절 신도라고 했다.

그때서야 나는 그녀에게 인사를 했다. “아! 예 안녕하세요?”라며 길 중간이어서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광경을 본 남편은 왜 인사를 그렇게 하느냐며 나를 나무랐다. 상대방의 인사에 너무 성의 없이 답례를 했다는 것이다. 그토록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얼마나 무안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 이렇게 해서 오해가 생기겠구나. 회상 일을 하다 보니 남 앞에 서서 이런저런 말을 해야 할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그는 나를 알았지만 내가 그를 자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처 몰라본 것일 뿐이다. 그러나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인사란 작은 일이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인연은 인연으로 이어져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와 상관이 있든 없든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작은 행동 하나에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친구로 주변을 아름답게도 하고 욕되게도 할 수가 있으니 어찌 함부로 살 수가 있겠나.

식물도 몇 먹이 때가 있다

집 베란다에 많은 화분이 있다. 우리 집은 22층이어서 흠과 많다. 작은 마당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꽃들을 키우게 되었다. 많은 화분에서 철따라 꽃이 피고 또 진다. 이제는 한 식구처럼 생각된다. 잘 살아주어 고맙고 감사하다. 나는 식물 중에도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이 살아있는 것을 특히 좋아한다.

내게 화분을 자주 보내주시는 분이 있다. 전 불교 방송 사장님이시고 신도회장님이셨던 류진수 회장님이다. 지금까지 많은 종류의 화분을 보내주셨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베란다로 나가 그 화분들과 아침 인사를 한다. 그 화분들이 집안을 향기로 가득 채워주기 때문이다. 지난 봄 처음으로 선인장과와 식물 키우게 되었는데 작은 아기 씨앗 몇 개나 달려 있어 때여 키우다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다른 화분에도 나누어 심었다. 시간이 갈수록 아기 모종이 자꾸만 시들더니 그만 죽어버렸다.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아직은 엄마의 땃줄에서 자라고 있어야 할 때인데 너무 성급하게 나누는 바람에 아까운 새순들을 죽게 했다는 것을,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 후회스러웠다. 모든 것에 함부로 할 수 없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생명을 다루는 일은 더욱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1번째 저서 출간!

*** 화두** <한영중 3개국어판>
'화두'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 평생의 선문답의 결정판이다. 생생히 살아있는 선(禪)을 한영중 3개국어로 만날 수 있다.

*** 바로보인 신문영송 22권**
전30권 중 제22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신문영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중사의 안목으로 모든 공안을 평하고 송하여서 공안참구의 깊이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31종 61권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031-534-3373 / 010-9043-1016

개달음에 도달하는 수행지침서
해탈 그리고 님바나 **화제의 신간!**

붓다가 전하는 수행의 비밀! 이 시대 최고의 수행지침서!
누구나 쉽게 열반에 이르는 알기 쉬운 불교수행법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붓다의 머리칼과도 같아서 수행자들에게는 진여의 강을 건너는 뱀목이 될 것이요, 범부중생에게는 감로수가 될 것입니다

- 전 해인사 주지, 현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태종사 조실 도성영공, 추천사 중에서-

한국의 선불교 전통에서 오랜 세월 수행하다가 초기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접하고 비로소 안심입명의 숲을 쉬게 된 스님의 진솔한 사연을 접하는 것 같아 깊은 감동이 울려옵니다

- 한국배달리성전학회 회장 퇴원 전채성박사 추천사 중에서-

아신 수완나 편저 / 신서판 / 254쪽 / 8000원

[출판사 서평]
역사와 마음 닦는 책을 거울, 보감이라고 하였는데, 이 책이야말로 현대판 불교 명심보감이라고 할 수 있다. 단지 편견 없이 바라보고 가르침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한 구 한 구, 한 쪽 한 쪽 독서하며 수행해 나가면 반드시 해탈과 님바나에 이를 수 있다.

구입문의 : 정우서적 (02)765-2920

화제의 신간! 新刊 四柱通變 活用法
(四柱는 理論보다 通變이 중요하다)

아무리 사주이론에 능통하다해도, 사주를 놓고 통변에 능통하지 못하면 입이 열리지 않고, 유명무실하다. 옛날부터 통변에 관한 해설이 다양하게 전해져 왔지만, 이를 바로고 쉽게 설명한 책은 드물다. 논어를 읽고도 논어를 모르는 말이 있듯이 명리학을 공부하고도 통변을 몰라 입이 열리지 않는 것이다.

본서는 사주통변의 핵심을 수록한 것으로 심신통변의 활용법과 통변의 작용에 따라 변화하는 운명과 성격, 육친관계, 직업 및 건강에 미치는 인사전반의 작용을 질서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정독 이해하게 되면, 역학을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특히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사주감정에 실수가 없을 것이라 자부하는 바이다.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會長 孫中山 著 (316쪽 / 값 30,000원)
책자 신청 053)324-2468 / 010-9391-5699

아래계좌로 입금하시면 우편물 속달로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 : 농협 352-0585-5250-53 (예금주 손상용)